

소상공인 보증 원금상환 1년 유예 지원

전북신보, 고·중금리 보증부 대출 이용 사업자 저금리 보증으로 대환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전북신보)은 지난해 전북신보를 통해 대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1년 더 유예할 수 있는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II 특례보증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환 유예 지원은 3(고)급리, 고환율 고물가, 1(저)저성장)의 복합 경제위기 장기화로 신용보증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방안이다.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II 특례보증은 고·중금리 보증부 대출을 장기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한보증과 기존 대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추가로 1년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상환 유예 등 두가지 트랙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재단의 신용보증을 1년 이상 이용 중인 기보증 업체와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특례보증을 1년 이상 이용 중인 업체다.

전북도에서 1~2% 이자를 지원하고, 상환방식도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과 거치상환방식 두가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고금리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경영회복과 재도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금융 소방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보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063-230-3333) 또는 디지털금융지원(0290-462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전주완주임실지사는 25일 완주군 대이저수지에서 2024년 안전영농기원 통수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들어갔다.

농어촌공, 안전영농기원 통수식 개최

기후변화 철저한 사전대비 풍년 농사기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전주완주임실지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5일 완주군 고산면 대이저수지에서 2024년 전북본부 대표 안전영농기원 통수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지역인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박태선 기반사업이사, 이정문 전북지역본부장, 이광희 전주완주임실 지사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해 농사를 기원했다.

전북본부는 대아·동상·경천저수지에 확보된 물을 어우취수문을 통하여 완주군 3,051ha, 익산시 3,553ha, 군산시 3,661ha 등 대아광역수계 관내 10,265ha에 약 1억9천

만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박태선 기반사업이사는 기념사에서 "오늘 통수식을 계기로 우리공사 전북지역 전 임직원은 농업인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되새기며, 농업인의 소중한 땀방울이 풍족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차질 없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보수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고 4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지사 물관리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인 물을 어우취수문을 통하여 관내 농업인이 영농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전북본부는 지난 23~24일 전주시와 완주군을 찾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과 함께 2,750만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 550개를 전달했다.

우리농업지킴이운동 전북본부 전주시 등에 사랑의 꾸러미 전달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병철 NH전북농협 노조위원장)는 지난 23~24일에 각 전주시와 완주군을 찾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과 함께 2,750만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 550세트(전주300세트, 완주250세트)를 전달했다.

과일류·채소류·고추장·된장 등 우리농산물로 구성된 이번 꾸러미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고,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전달식에서 박병철 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진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서울대 호흡대사 챔버 4대 보유, 한우 메탄가스 측정 실험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원장 김창택)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증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농촌진흥청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김옥기 기자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정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입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정현정 과장은 "이번 지정으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두 곳이 됐다"라며 "국내 메탄저감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은 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53)로 신청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바이오진흥원, 홈플러스 유통사 바이어 초청 상담회... 도내 농수산물 기업 판로 열어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25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홈플러스 유통사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현장품평회'를 개최했다.

도내 농수산물 기업들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국내시장 판로확보를 위해 개최된 이번 상담회에서는 도내 32개 업체와 홈플러스 구매바이어 7명이 참석한 가운데 1:1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되었다.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납품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상담회는 도내 농수산물기업의 제품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바이어들의 관심품목으로 참가사가 구성되어 상담의 질적 성과를 높였다. 주요 상담품목은 즉석떡볶이, 즉석 곱창, 편육, 코인육수, 1인용 간장게장, 닭가슴살 등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의 수요

증가를 반영한 제품들이 주를 이뤘다.

이날 행사는 지난 11월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후속 연계지원의 일환으로 고품가, 고금리, 고환율에 판로개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수산물기업의 판로 다변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상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이번 상담회에서 대형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홈플러스 유통사 바이어의 현장품평을 받을 수 있어 값진 자리였다"고 전하며, "바이어와 구매상담 성과도 좋아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는 도내 농수산물기업 제품에 대한 바이어의 현장 품평을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앞으로도 도내 농수산물 기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 25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홈플러스 유통사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현장품평회'를 개최했다.

업의 대형유통사 입점 판로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개공, 익산 부송4지구 단독·근생 등 매각 추진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익산 부송4지구 내 단독주택·근린생활·상업용지(체비지) 51필지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부송동 시가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조성 및 주거환경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88억원, 조성면적은 29만4,281㎡이다.

공급토지 및 공급금액은 단독주택용지 33필지(258㎡~373㎡), 근린생활용지 7필지(350㎡~468㎡), 상업시설용지 11필지(377㎡~579㎡)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총 21억 원이며 필지별 분양가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보상분양처(063-280-7426)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jb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언비드를 통해 진행되며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입찰 신청 및 제출은 5월 8일부터 9일까지, 낙찰자 발표는 5월 1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공사 담당자는 "익산 부송4지구는 쾌적한 기반시설 확충 대규모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하여 도시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이며, 환경 방식으로 인한 택지개발로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되는 명품 개발사업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